

연중 제 21 주일

기도서	419면 (A해)
제1독서 : 이 사	22, 19-23
제2독서 : 로 마	11, 33-36
복음 : 마 태	16, 13-20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마태 16,18).

□강론

「참된 믿음」

우리 주변에는 “신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믿는 것은 다 같지 않은가?”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항간에는 믿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그저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우리가 살다보면 나의 주장을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선입감 때문에 간단히 응수를 하고는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믿는 것이 모두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엄밀히 말하여 믿는 것이 모두 똑같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예를 들자.
 믿는 것이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은 마치 마시는 것이 모두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에 비길 수 있다. 물론 마시는 행위 자체는 외적으로 보아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물은 마시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독약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같이 외적으로 볼 때 믿는 것도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으나 내적으로 볼 때는 믿는다는 것이 다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하느님을 믿는 것과 부처님을 믿는 것, 서낭당을 믿는 것을 같은 믿음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오늘 복음에서 보드시피 참된 믿음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알려주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신다.

예수님을 이상적인 도덕과 올바른 가르침을 남기고 가신 스승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덕박사나 철학박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와는 달리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총으로 바위와 같은 튼튼한 믿음을 가졌었다. 물론 베드로도 한 때 주님을 배반한 적이 있었으나 충분한 회개를 했으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까지 바친 사람이었다.

오늘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행복하다”고 하신다. 과연 참된 믿음은 행복의 보증이다. 그러나 약한 인간인 우리는 일시적으로 예수를 배반하거나 잊어버릴 때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 달아드는 자세를 보존한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믿는 것은 모두 좋으나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 밖에 없다.



시내버스 타령 —어느 날의 일기

시내버스가 일시 운행을 중단하던 첫날, 참으로 갑갑하고 실란했다.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차단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나는, 열집의 짱구네 아빠 덕택에 학교에 갈 수 있었다. 맘씨 좋은 짱구아빠는 원하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 주었다. 발을 동동거리던 어떤 아줌마, 차에 오르더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혼잣말을 한다. —“사실 시내버스 아자씨들 월급 좀 올려 주어야 해. 그 양반들,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나 애써.”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찌저 짜증을 내지 않는가?’

지난 70년대부터 일부 깨어있던 근로자와 농민들은 자신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힘껏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들은 교회를 그 터전으로 삼아 모이고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금년 6월부터 시민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왔다. 참으로 시간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바로 혁명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인가!

어쨌든, 고맙게도, 시내버스 기사들은 시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일단 행동을 잡았다. 물론 아직 그들의 주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참으로 두렵다. 이제 곧 아이들이 개학하는데...

그런데도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해결책이라는 게 고작 버스요금 인상 정도인 모양이다. 운전기사의 주장이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라는 것이었던가? 결국 시민들은, 아니 자가용 없는 서민들은 동배북이란 말인가? 1950년대처럼 시오리길을 걸어 외갓집(外家)에나 갈까? 아니면 기업주들 집앞으로 모일까? 아니면...? 아니지, 까딱 잘못 하다가는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넣고 말테니까...

순정이 산책



드디어 완공! 천호(天呼) 피정의 집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의 주된 사업중의 하나였던 천호 피정의 집이 완공되어 오는 8월 31일 오전 11시, 그 축성식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4월 14일에 기공, 16개월만에 완공을 보게 된 이 피정의 집은 연건평 540평에 성당, 강의실, 칩실(34개), 각종 회의실(3개) 및 식당,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각 신심단체 그룹이 한번에 120여명 정도나 피정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각 본당에서 모아진 헌금과 뜻있는 신자들의 정성, 특히 재경 전주교구 출신 신자들의 정성으로 완공을 보게 된 이 피정의 집은 총 4억3천여만원이 소요되었고 이 집에 비치된 각종 비품도 모두 개인 및 단체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제 우리 교구의 절실했던 숙원사업중의 하나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물론 아직도 할 일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절실했던 피정의 집을 우리 손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하느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은 우리들 모두 가슴 뿌듯한 마음으로 서로 감사하자. 축성식 그날에는(8월31일 오전 11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

피정의 집에 이르는 진입로 포장공사는 올 가을 개통을 위하여 계속 공사중이다. 또한 피정의 집은 마련되었지만 그의 환경조성과 더불어 계속적인 천호성지 개발에 더욱 협조를 아끼지 말자.

한편 50주년 기념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4일 월례회의를 갖고 치명자산(누갈다 묘역) 개발에 대한 설계심의와 성직자묘역 조성사업 및 누갈다 생가터(조남부락) 개발사업 문제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천호 피정의 집 축성식에 관한 제반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 천호 피정의 집 축성 (축)

때 : 1987. 8. 31 시간 : 오전 11시

장소 : 천호 천호성지

50주년 기념행사

지금부터 시작하자



전주 자치교구설정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모임이 지난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톨릭센터에서 있었다. 이 모임에는 기념행사 부서 담당자와 각 본당 꾸리아 단장들을 포함해서 48명이 참석했다.

말씀의 전례에 이은 특강①에서 김진소 신부(호남교회사 연구소장)는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소개하며, 그들이 대사회적인 면으로 교육활동에까지 관심을 가졌던 점을 지적하여 오늘의 우리 신앙자세를 일깨웠다. 김신부는 끝으로 50주년의 의미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 교구민이 하나로 일치되어 10월 1일의 행사를 뜻있게 치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강②에서 허필수(중앙교육연구소장, 在京신자) 형제는 조선교구설정 150주년 행사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행사의 실무를 맡아본 경험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모든 교회행사의 성공은 먼저 기도로 바탕을 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사로 치루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동원계획, 충분한 연습과 안전대책들에 최대의 신경을 써야 하며, 이 일을 위해서는 교구내의 모든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가 호흡을 함께 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50주년 기념행사의 개요」를 들고 부서별 모임을 거쳐 전체적인 의견의 종합과정을 가졌다. 끝으로 총대리 김환철 신부 주례의 파견미사에서는 준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이제 50주년 기념행사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순교 선조들의 선구적인 삶을 본받아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빛을 「밝히오리다」고 나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엄숙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50주년의 의미를 기억하며 행사의 성공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자. 「목주의 기도 5단」 바치기.

둘째로, 10월 1일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자. 아울러 우리 친구 한 사람씩을 특별히 초대하여 하느님께 봉헌하자.

- 모임 : 각 본당 사목회장 회의
 - 8월31일(월) 천호 피정의집, 빠짐없는 참석바람
- 50주년 전례성가 안내
 - 일당 : 전주교구의 노래(가톨릭성가집) 15장 22장, 봉헌 : 76장 221장 340장
 - 성체 : 174장 177장, 퇴장 : 19장

특강 : 정신과학 세미나

주제 : 교도의 정신 및 두뇌 활용법
 효과 : 기여법 · 집중력 · 공부법 · 신앙심화 · 목표성취법
 · 상대교정법 · 타인 컨트롤 등
 때 : 9월 1일(화) · 9월 4일(금)
 오후 2시 · 7시(2회)
 곳 :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연사 : 박 銀 星(요한) 원장
 참가비 : 1,000원 ※ 나이 학력 제한없음

직원 채용 공고

모집부분 : 일반직 ○명 (남·녀)
 응모자격 : 1960년 이후 출생자(남), 1965년 이후 출생자(녀)
 마감일 : 1987년 8월 28일
 문의전화 : 9-2444 · 3494
 삼례신용협동조합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 전문의 마기환
 한남희(비리시다)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85-2203

교 구 소 식

1. 성체 분배권자(수도자) 교육 : 일시-8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2. 철야기도회 : 일시-8월 28일(금) 밤 11시~새벽 4시까지,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3. 이리지구 청년협의회 발족 및 체육대회 : 일시-8월 30일 오후 1시30분
장소-영등동 천주교회, 대상-이리지구 각 본당 회원
 4. 전교 가르멜 수녀회 성소모임 : 여러분은 교회의 희망입니다
대상-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고자 원하는 젊은 미혼여성
배-9월 6일 오후 2시(매월 첫째주일)
장소-(본원)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1-1 (02) 694-1617
(수련원) 인천 북구 계산동 42-1 (032) 523-2989
 5. 초·중·고등부 여름방학 교리교재 대금 미불인 본당은 8월말까지 완납바랍니다
 6. 베소라성서 초급반 개강(모세 오경) : 장소-김보나 수녀
개강일시 : 군산반-9월 7일(월) 오후 2시~4시, 장소-오룡동 천주교회
전주반-9월 9일(수) 오전 10시~12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이리반-9월 1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창인동 천주교회
 7. 숲정이 광고란을 많이 이용합시다
문의전화는 교구청 홍보국 전화 85-0041~43
- ☐ 축! 영명 : 성 바르톨로메오(24일)-문정현 신부님
성 아우구스티노(28일)-김제덕 주교님, 김영일, 한정현 신부님
축하합니다

잡 관!

☆ 사랑의 손길-수재의연금

교구에서는 지난 폭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으기
로 한바, 각 본당과 제단체에서 성의껏 걸어진 헌금과 물품들이 교구에 속속히 모아지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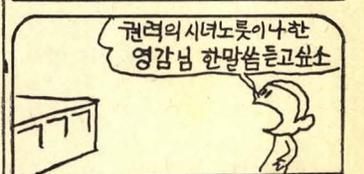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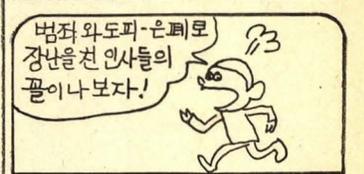
교구에서는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대전교구에 교구 사회복지회를 통해 이미
300만원의 의연금을 전달할 바 있다.

우리 교구내에서 보고된 피해 본당(용안본당, 화산본당)에 대해서도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토록 어려울 때,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수재민을
위한 의연금에 협조한 모든 본당, 단체, 교우들에게 감사한다.

사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다.

그것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교의 본질 자체가 강렬
한 이웃 사랑인 것이다. 앞으로도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 교회공동체, 특히 사회의 어
려운 처지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잊지 말자.

요심이 (733) 김병오



☐ 1분 명상

인간의
마음은
하느님의
빛이다.

-탈무드

명동피부과의원

한 요 가 원

일반요가 · 단식지도
개인시술
이 순 웅(아오스팅)
노 명 학
전주시 중앙동 2가 3-1
(전주백화점 뒷골목)
(0652) 83-4041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의 (크리스티나)

이 승 렬(엘리아)

☎ 전주 84-7272

관동로 서울신타운행전지연 골목

건강을 위한 희소식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서 거처하게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백을 완전히 차단하는 특수 비닐 래자를
판매합니다.

가 격 : 1마-800원(1,15×0,9m)

장 소 : 중앙성당 빈첸시오회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양호도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 반미사 안내: 당분간 쉽니다
1. 예비자 입교에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반)
2. 모임: 청년연합회-29일(토) 오후 5시
재속혈제회-다음주일 오후 2시
3. 청년단체 연합회 피정: 9월 5일~6일
장소-천호성지, 주재-일치
4. 천호 피정의집 축식: 31일 오전 11시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당버스 안내-31일 9시30분 출발
신청-사무실, 회비-1천원
5.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마무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니다
신입 및 남부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979,850원 교무금: 687,5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3-1653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1. 금주는 애령주간입니다.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 차주모임: 금성회-공식미사 후
금암회-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28일 저녁미사, 대상자는 사무실에 신청
4. 첫영성체 교리: 25일~9월 25일(화·수·목·금)
매일 오후 5시
5. 신축헌금 50주년 분담금: 헌금 남부에 협조바랍니다
6. 금주복사: 이대용·장유진 차주: 권철주·김종구
7. 금주봉헌: 오재영 부부 차주: 이수복 부부
8. 미사안내: 매피의 모후pr 차주: 자비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526,580원 교무금: 652,000원
성모승천헌금: 452,160원

(떡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 1. 떡진·상관·고산본당 사목회 합동 친목대회
오늘 공식미사후 고산천에서 1시
본당 사목회 임원은 부부동반
2. 청년성가대 임시총회: 오늘 저녁미사 후(성당)
* 지휘자를 찾습니다(추천 바람)
3. 본당 전신자 합동 성지순례(계획) 안내
일시-9월 27일(주일), 장소-서울 세남터·절두산
(독립기념관 경우), 참가비-1인 5천원, 주최-사목회(주관-L·M 뿌리아), 신청-레지오 팀별로 8월 30일까지 접수 또는 반회장을 통해 사무실에 접수
4. 본당버스(24인승) 이용안내: 성지모임에 한하여 토·일요일 및 휴일에 활용(방학중에는 평일도 가능), 도내 2만5천원, 도외지역 5만원(본당 단체의 별도추가) * 통행료, 주차비 등은 별도 지불할것
본당 사무실에 신청(주임신부나 재정부장 결재요)
5. 애덕회에 가입하여(1구좌 1천원) 불우형제에 사랑을 나눕시다
6. 본당 M·E 부부 전체모임: 다음주(30일) 공식미사후
7. 금주의 분당철수: 동신자의 모후pr-29일 오후 2시
8. 보좌신부님 금주 휴가: 화·수·목요일 새벽미사 없음
□ 지난주 봉헌금: 602,270원 교무금: 350,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 수녀원 신축헌금 신입 및 납부현황
19일까지 총신입액-8,440,000원(125세대)
19일까지 총납부액-4,410,000원
1. 예비자교리: 성인-목 오후 8시30분
중·고생-토 오후 6시, 주부반-금 오전 9시30분
2. 수요나눔잔치: 팔3구역, 차주: 팔5구역
3. 분당철수: 은총의 어머니
4. 주일학교 첫영성체 교리: 26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람. 대상-3~6학년
5. 동령회 단합회: 22~23일, 장소-동상면
6. 죄인의 의탁 레지오 탄생: 목요일 오후 8시30분(주부), 단장-한명자, 부단장-송금주

- 7. 모임안내: 구영장회의-27일 오후 8시30분
사목회·모이세회-오늘 공식미사 후
뿌리아 회의-차주 공식미사 후 2시
8. 천호 피정의집 축식: 31일 오전 11시
차편: 시외버스 터미널→천호 종점
9.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이동열 ②전정순
차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이의준 ②최병진
□ 지난주 봉헌금: 207,460원(내동 18,810원)
교무금: 106,000원 나눔의날 헌금: 50,230원
성모승천대축일 헌금: 165,89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운
사목회장 소병을

- 1. 모임 뿌리아 월례회: 매월 넷째주일 오후 3시
반장모임: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2시
제단체 회장단 연석회의: 셋째주 일요일
청년회: 일요일 저녁미사후(9월6일 발족예정)
2. 예비자교리 시작: 23일 공식미사 후, 지하 대장당
3. 감사드립니다: 김미카엘 부부 성합기증
김진순 그레고리아 성작 기증
4. 교무금, 신축헌금 및 비품비: 납부바랍니다
5. 금주전례: 해설-이진창, 독서-한인수·천양희
기도-소태영·최정림
6. 새벽미사 없음: 24일부터
7. 금주 분당철수: 카리따스회-29일 오후 2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187,120원 교무금: 30,000원
대축일헌금: 197,370원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1. 성모성년 묵주신공: 100만단의 장미송이를 성모님께 열심히 바칩시다(신청용지에 기록하여 제출바람)
1. 분당신부님 휴가일: 24일~29일
* 평일미사 없고 토요일전미사만 있습니다
2. 29일: 제대회 오전 10시, 병자봉성체 오후 5시
유아세례 오후 6시
3. 본당 전신자 성지순례: 일시 및 집결지-30일 오전 7시 성당앞 집결(1일간), 장소-절두산에서 독립기념관, 회비-5천원, 접수-사무실
4. 30일(주일) 주일학교 개강: 오후 2시(교리있음)
5. 첫영성체(9월 20일) 교리
신청대상-조동부 3·4·5·6학년, 교리일시-9월1일~9월20일까지, 화·수·목·금요일에만 실시(오후 4시~5시30분), 신청마감일-31일, 교리교재대-1천원
6. 미사안내: 상아보람
7. 금주 분당철수
화-순결하신 정녀, 토-매피의 모후
8. 금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기도-나병열·조현자
봉헌기도-박영근·장정진
차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기도-유훈용·윤덕남
봉헌기도-신천우·권정진
□ 지난주 봉헌금: 455,560원 교무금: 527,2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오늘의 모임: 뿌리아 오후 2시, 톨슨 피아노학원
2. 금주의 모임: 자모회-27일 어머니미사 후
3. 축! 영명: 박사비나 수녀님(29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유아세례: 30일 오후 7시
대상자는 사무실에 미리 신청하세요
5. 6월 27일 영세자 첫교백: 30일 오전 9시30분
6. 성전신축금의 신입하고 납부바랍니다
7. 사목회 임원은 공식미사에 참석하세요
8. 초등부 파란마을 주일학교 개학: 30일 오후 3시
9. 멜마회 소록도 방문: 7일 오전 8시 출발
신청 40명, 회비-1만원
10. 금주전례: 해설-안남근, 독서-기도-김진영·이경순
봉헌-박창윤·윤경희, 안내-한갑용·경화중
차주전례: 해설-전경자, 독서-기도-이승백·사순옥
봉헌-장세돈·저남숙, 안내-정수일·김병진
□ 지난주 봉헌금: 442,270원